

예레미야 애가

1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고도다

2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 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험악한 곳에 미쳤도다

4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여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 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5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6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7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함이여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8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9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0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 방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12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3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여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14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얹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음이여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15 주께서 내 지경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16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으로다 원수들이 이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으로 나가는 살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심을 기뻐하시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22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2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

셨음이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
 하셨음이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얹
 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3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며 원수 앞
 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 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4 원수 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륙하셨음이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며 모든 궁
 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훼파하사 처녀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 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훼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
 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
 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와의 전
 에서 환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8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
 고 훼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관으로 통곡하
 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9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훼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의 목
 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10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
 에 무릅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둘렀음이며 예루살렘 처녀
 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쏘
 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
 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라

12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
 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
 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
 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
 교하여 너를 위로 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나

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케 할 것만 보았도다

15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컬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16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은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훼파하신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18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0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21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젖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22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

1 여호와와 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2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3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자주 나를 치시도다
 4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5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6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지 오랜 자 같게 하셨
 7 도다
 7 나를 둘러 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8 하셨으며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
 10 다
 10 저는 내게 대하여 엮드리어 기다리는 고품과 은밀한 곳의
 11 사자 같으사
 11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
 12 하게 하셨도다
 12 활을 당기고 나로 과녁을 삼으심이어
 13 천둥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
 15 랫거리가 되었도다
 15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쏙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17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
 18 을 잊어버렸음이어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
 19 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
 20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23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
 25 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26 선을 베푸시는 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29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32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
 기실 것임이니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
 니시로다
 34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35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급게 하
 는 것과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라
 38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40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
 게 하시고
 45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진개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
 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8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 내 눈의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
 여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51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
 게 하는도다
 52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53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어

54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
 절되었다 하도다
 55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
 나이다
 56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
 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57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
 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
 원하옵소서
 60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
 셧나이다
 61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훼파하며 나를 모해하는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
 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63 저희가 앓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
 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65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66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와 천하에서 멸하시리이
 다

4

1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
 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2 시온의 아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
 기장이의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 들개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4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5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7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8 이제는 그 얼굴이 솟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
 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9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
 어지므로 이들이 찢림 같이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10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11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심이어 시
 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
 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13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
 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14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 같이 방황함이어 그 옷이 피에 더
 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수 없도다
 15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가라,가
 라,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어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6 여호와께서 노하여 흘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치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으로다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눈이 상함이어 우
 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18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음
 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
 지막이 이르렀도다
 19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어 산꼭대
 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음이어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21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
 나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
 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

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5

1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2 우리가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3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쉼을 얻으오며

5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곤비하여 설 수 없나이다

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8 종들이 우리를 관할함이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11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 보였나이다

12 방백들의 손이 매어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3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쉼을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14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5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16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17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18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
치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
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